지난해 소방위반사범 전년비 14% 증가

시소방본부 16명 검찰 송치
소방시설법 위반 10건 최다
과태료·과징금 162건 적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혐의로 24건을 수사해 1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위반사범 대비 14.2%(3건)가 증가한 것이다. 소방본부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건은 소방시설법 위반이 10건(41.6%)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9건(37.5%), 소방기본법 위반 5건(20.9%) 순이다.

소방시설법 위반 사례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 위반 8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1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는 변경허가 없이 주유소 내 건물 증축 5건,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 3건, 무허가 위험물 취급 1건으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는 모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례다. 지난해 5명이 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소방관계법령상 과태료 사안은 161건을 적발해 151건을 징수하고,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인 과징금은 1건 적발해 1건 모두 징수했다.

황기석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방관계법령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북부소방서 소방안전교육 광주북부소방은 최근 북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종업원 등 70여명에게 올해 첫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북부소방은 이날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유지관리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했다. 〈북부소방제공〉

광주시 2020년 주거실태조사

5개 자치구 3000가구 대상

광주시는 9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거주 3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실태조사는 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 수요 등을 파악해 소득계층 및 주거유형, 점유형태 등에 따른 2030 맞춤형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표본 규모는 3000가구다.

동구 450, 서구 600, 남구 525, 북구 750, 광산구 675 가구이다. 조사구는 200개로 나누어 35명의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주요 항목으로는 주택의 종류, 주거 및 편의시설 만족도, 주변 지역의 환경, 주거비 부담, 주거 이동 계획,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이다.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조사 분석이 마무리되는 3월 중 발표된다. 김종호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광주시의 향후 10년간의 주거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조사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상수도본부 청원경찰 적십자 특별회비 광주상수도사업본부 청원경찰모임(정수호 회장)은 7일 매곡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2020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독감 유사증상 환자 급증…인플루엔자 감염 주의하세요

광주시 예방접종·손 씻기 당부

광주시는 7일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맞거나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독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가리킨다.

지난해 11월 15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45주, 광주시 외래환자 1000명당 6.1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주(12월23일~12월28일) 광주시 기준 48.6명(전국 49.8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광주시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독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독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독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고 소개했다.

생후 6개월~만 12세 어린이는 오는 4월 30일까지 독감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독감 예방을 위해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외출 후나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용변 후에는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기침을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하고,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시립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초등생 대상 다양한 독후 활동

광주시립도서관(무등, 사직, 산수)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무등도서관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초등 1~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연다.

사직도서관은 13일부터 15일까지 초등 4~6학년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산수도서관은 13일부터 15일까지 초등 3~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독해력을 키우는 신문 기사 읽기'라는 주제로 독서교실은 연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10일까지 2020년 민방위대 편성

광주시는 오는 10일까지 2020년도 민방위대를 편성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민방위기본법 및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민방위대 편성 의무자는 1980년 1월1일생부터 2000년 12월31일생(만 20~40세)까지 대한민국 남성이다. 신규 편성 대상자는 2000년생이고, 해제자는 1979년생이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중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군인, 예비군,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학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은 제외되며 서류 제출 또는 직권 처리에 의해 편성이 제외된다.

민방위 대원은 지역민방위대나 직장민방위대에 소속되며, 안보·안전의식과 민방위 사태 및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편성 1~4년차는 년 4시간, 5년차 이상은 년 1시간 이내의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현재 광주시 민방위 대원은 9만7000여명으로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민방위 교육, 민방공 대피·재난대비 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119구급서비스 품질 전국 '최우수'

소방청 평가, 장관 표창 수상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 주관 2019년 전국 18개 시·도 119구급서비스 품질분야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품질평가는 119구급대의 환자 평가·처치·이송과 같은 병원 전 단계 구급활동 사항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로 18%대에 이르는 높은 자발순환 회복율과 전국 2번째 '특별구급대' 운영 등 구급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8년 대비 1% 이상 높아진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율은 전국 최초로 17%대 벽을 넘어 소방과 지역 내 병원 간 협업체계(지역화)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됐다.

황기석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들의 수준 높은 응급처치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도 시민에게 더욱 촘촘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교육훈련과 안전취약계층 사고 예방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관리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9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관리' 점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3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주시는 분야별 의무교육을 성실히 수행해 광역 지자체로는 부산과 함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관리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재난안전 전문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부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38개) 담당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 주관부서의 관리자(7시간)와 실무자(14시간) 등이 의무교육으로 신규(업무담당 1년 이내), 정기(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로 이수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본청과 자치구, 공사·공단 담당자 404명을 광주시공무원교육원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관련교육을 받도록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북구, 지자체 혁신 평가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 북구가 2019년 지자체 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는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자 실시됐으며, 전문가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3개 항목 14개 지표를 심사한다.

북구는 지난해 주민 참여 '내 손으로 만드는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고독사 제로화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돌봄 서비스' 제공, '사랑의 집수리 및 저장강박세대 청소·방역' 지원,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 생산품 공동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혁신행정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